

정진산업스카이·타요바리스타즈 “우리 챔피언 먹었다”



1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에서 우승한 정진산업SKY 선수들이 우해동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리그 타요바리스타 선수들이 우승을 기념하며 박주용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 /최환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일리그 정진산업스카이, 에프나인에 10-9 끝내기 승 무등리그 타요바리스타즈, 태평법률사무소에 7-2 강우콜드 승

정진산업스카이와 타요바리스타즈가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무등기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이 11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렸다. 지난 9월 2일 시작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무대는 광일리그 결승과 무등리그 결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진산업스카이는 에프나인에 맞붙은 광일리그 결승에서 10-9로 끝내기 승을 거뒀다. 무등리그 결승에 나선 타요바리스타즈는 태평법률사무소에 5회 7-2, 강우 콜드승을 거두면서 무등기 우승의 꿈을 이뤘다. 정진산업스카이는 1회초 2사에서 수비

실수로 4실점을 하며 어렵게 경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선발 최홍준이 1회 이후 무실점 행진을 시작했고, 타석에서도 연속 3루타를 터트리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재윤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승부를 4-4 원점으로 되돌린 3회말 상대 실책으로 기회를 이어간 정진산업스카이가 5-4 역전에 성공했다. 4회에도 3점을 뺏으면서 8-4를 만들었지만 우승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에프나인의 두 번째 투수 정기준에 막혀 무사 만루 기회를 놓친 정진산업스카이는 6회 2점을 내주면서 8-6에서 마지막 7회 수비에 나섰다. 박종현에 2타점 동점 3루타를 내준 정진산업스카이가 8-9 역전을 허용했다.

1점 차로 뒤진 7회말 마지막 공격에 나선 정진산업스카이가 볼넷 두 개로 이뤄진 1사 1·2루에서 최홍준의 적시타로 9-9를 만든 뒤 1사 만루서 나온 김준석의 몸에 맞는 볼로 끝내기 승을 연출했다. 무등리그에서 맞붙은 태평법률사무소와 타요바리스타즈는 1회 ‘도루’ 경쟁을 벌였다. 1회초 볼넷으로 출루한 태평법률사무소의 송승렬이 도루로 2루로 향할 땐 1사 1·2루에서는 더블 스틸로 3루까지 도착했다. 이어 4번 방비택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왔다. 타요바리스타즈는 상대 도루에 허를 찔렀지만 포수 유진우의 도루 저지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상대의 기세를 꺾었다. 그리고 1회말 타요 바리스타즈도 도루로 맞붙을 났다. 톱타자 조양성이 좌익수 키 넘는 2루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3루까지 향했다. 김운

학의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양준태의 호수비로 플레이가 됐지만 1점을 만들며 추격을 시작했다. 1회 첫 타석에서 안타로 출루한 뒤 견제사로 물러났던 위동철이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유진우의 안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에도 성공했다. 역전에 성공한 타요 바리스타즈는 4회에도 대거 4점을 뺏아내면서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갑작스런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경기는 5회초 태평법률사무소의 공격을 끝으로 종료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전라남도체육회 후원으로 치러졌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회 참가한 선수 모두가 챔피언”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회장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우승자입니다.”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공식 후원사인 (주)아로마라이프 이학재(61) 회장은 “매년 대회의 경기력 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훌륭하다. 지역 야구인들을 비롯해 사회인야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회에 대한 애정어린 말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회장은 이어 “공을 치고 달리며 그라운드를 뛰어 펼치는 야구는 동료들과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며 “더불어 조지력과 동료애가 생기고 건강에도 도움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야구 뿐 아니라 이회장의 나눔정신은

지역사회에서 소문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억원 이상의 고액개인기부자들의 모인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광주에서 33번째로 가입했다. 이회장은 또 “올해 8회째를 맞는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는 그동안 지역 사회인 야구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며 “아로마라이프도 앞으로도 사회인 야구에 더욱 지원해 호남시민 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일리그 '정진산업스카이' | 우승팀 감독·최우수 선수 인터뷰 | 무등리그 '타요바리스타즈'

“선수들 열정 믿어 승리 확신”

우해동 정진산업스카이 감독 “우리 선수들의 실력과 열정, 팀워크를 믿었습니다.” 광일리그에서 에프나인(F9)을 상대로 접전 끝에 무등기 우승을 거머쥔 정진산업스카이 우해동(46) 감독은 “5년만에 결승에 올라와서 남다른 각오가 있었다. 뽕뽕 뽕뽕 팀원들 덕분에 이다”라며 우승을 자축했다. 1회에 4점을 뺏기며 초반부터 위기에 몰린 정진산업스카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회말에 5-4로 역전, 결국 10-9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우 감독은 “선수들을 믿었다. 초반에 텍사스성 타구로 점수를 잃었지만 부담 갖지 말고 뽕뽕 뽕뽕처럼 결과 역전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팀은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나다”며 “매 게임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고 우승의 비법을 밝혔다. 지난 1993년 창단한 정진산업스카이는 동호인들을 모아 창설한 25년 된 전통의 팀이다. 5년 만에 진출한 본선에서 단번에 우승을 거둔 뛰어난 잠재력의 팀이다. 우 감독은 “오는 11월 25일 광주 탑 베이스볼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이대로 내년 대회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팀 뽕뽕 뽕뽕 우승 너무 기뻐”

‘MVP’ 포수 원태현 “리그에선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리그 경기에만 나오면 부진해서 속상했다. 이번엔 모든 선수가 뽕뽕 뽕뽕 우승을 거머쥘게 되어 기뻐.” 에프나인과의 결승전은 물론 무등기 대회 내내 팀을 안정감 있게 이끈 정진산업스카이의 포수 원태현(25)이 광일리그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가져갔다. 원태현은 “(결승전이 치러진) 무등경기장에는 뒤에 네트가 없어 일주일 전부터 팀원들과 블로킹 연습을 하며 결승전에 대비했다”며 같이 고생한 팀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나이는 어리지만 팀 전체를 조율하는 포수 포지션을 맡은 원태현은 7회 초 역전을 허용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 그는 “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어 팀원들과 힘을 합쳐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복했다”고 위기의 순간을 돌아봤다. 파울볼에 귀를 맞으며 부상도 입었지만 “팀에 포수가 나밖에 없어 고통을 참으며 경기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힌 원태현은 내년에는 “더 상위 리그에 동시 출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대로 쪽~내년도 기대 하시라”

박주용 타요바리스타즈 감독 “무등기에 세 번째 출전해 결승에서 떨어진 적이 있지만, 오늘 드디어 우승해서 팀이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등리그에서 태평법률사무소를 꺾고 우승한 타요바리스타즈 야구단의 박주용(38)감독은 우승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매년 무등기와 함께 가을을 보내고 있는 타요바리스타즈는 ‘우승’을 목표로 이번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1회초 먼저 2실점을 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1점을 따라잡으며 우승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3회와 4회 각각 2점과 4점을 뺏아 7-2로 우위를 점한 타요바리스타즈는 5회초 강우 콜드승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감독은 “팀플레이를 중요시 생각해 플레이와 백업플레이 위주로 연습했다. 다른 팀에 비해 화이팅이 좋은 편이라 덕아웃과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하나같이 응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늘 날씨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하지 못한 점은 상대 팀에게도 우리 팀에게도 모두 아쉬웠다”면서 “내년에도 이 팀이 이대로 좋은 분위기를 쪽 이어가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기 행복”

‘MVP’ 유격수 조양성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MVP까지 받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무등리그 최우수선수의 영광은 타요바리스타즈의 조양성(31)에게 주어졌다. 이날 조양성은 유격수로 출전, 철통같은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이 7-2로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양성은 “결승전에서 무조건 이길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 형들이 같이 잘 따라와 줘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승리의 요인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를 시작해 20여 년간 타석에 선 조양성은 한때 사회생활을 위해 야구를 관두기도 했다. 하지만 야구 열정을 놓지 못한 그는 지난 2013년 다시 사회인야구를 시작해 이날 MVP의 영예를 차지했다. 조양성은 “좋은 형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우승 트로피도 거머쥘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하던 대로만 하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